

순창군 개발 토마토 발효식품 인기

풀무원에 고추장·쌈장세트 1000개 납품 ... 유통망 확보 박차

토마토 발효액 사용해 감칠맛 일품 ... 향당뇨·면역력 강화 도움

순창군이 개발한 토마토발효고추장과 쌈장이 국내 대표 건강식품 회사에 납품되는 등 인기를 끌고 있다.

순창군에 따르면 풀무원건강생활(주)에 토마토발효고추장과 토마토발효쌈장 세트 1000개를 지난 16일 납품했다. 이번 납품 물량은 시장반응 테스트 물량으로 시장에서 반응이 좋을 경우 납품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창 토마토발효 고추장과 쌈장은 토마토 페이스트를 활용해 만드는 기존 제품들과는 달리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서 확보한 미생물을 융합해 만든 토마토 발

효액을 사용한다. 미생물을 사용해 두 번의 발효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기존 제품보다 감칠맛이 훨씬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발효미생물진흥원에서 확보한 토종 미생물을 사용해 만들기 때문에 미생물이 갖고 있는 향당뇨, 항고혈압, 면역력 강화 기능도 높다는 게 군의 설명이다.

현재 토마토발효고추장은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자체 매장과 전주한옥마을 발효식품 판매소인 리던과 소풍몰, 광주 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향 휴게소에서 판매되고 있다. 또 (주)아밭, (주)교촌, 풀무원

건강생활 등 대형업체에 잇따라 납품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순창군은 올해 광주대구고속도로 대구 방향 휴게소에 판매점을 개설해 운영하는 등 중소형 거래처로도 유통망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교촌의 소스전용공장 신축에 따라 주원료인 토마토발효고추장 납품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산물 생산자와 납품업체 기술지도 등을 통해 최상의 제품 생산 및 판매인력을 갖춰 규모화와 전문화, 대형화의 기틀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토마토발효고추장이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지속적인 품질관리로 제품의 신뢰를 확보하고 유통망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토마토발효고추장이 순창의 새로운 명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토마토발효고추장과 쌈장 외에도 발효커피와 미생물 활용 건강식품 등 발효과학을 활용한 다양한 특산품을 개발, 유통 채널 확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순창=장영근기자 jyg@kwangju.co.kr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신청하세요”

저남도, 28억 추가 지원

1% 저금리에 인기

전남도는 유기농 중심의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을 다음달 13일까지 추가 신청받겠다고 20일 밝혔다.

추가 지원 기금은 28억원이며, 금리는 1%다. 지난 14일 기금 신청을 마감해 42억원 지원을 확정했으나, 이후에도 지원 요청이 많아 추가 신청을 받게 됐다.

신청 대상은 1년 이상 전남에 거주한 친환경농업인과 친환경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이다.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을 개인은 1억원,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는 5억원까지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활성화 및 친환경농자재 생산을 위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기존

에 보유한 시설을 확충할 경우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친환경농산물 원료 구입, 수매자금, 친환경농자재 생산자금, 포장 디자인 개발 비용 등과 같이 소득 증대에 소요되는 사업에 지원한다.

기금 용자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과 단체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심사와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까지 사업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2015년 42억원, 2016년 62억원, 2017년 46억원의 친환경농업육성기금 1% 저금리 지원해 친환경농업 육성에 힘써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옥과농협, 조합원 자녀에 장학금 지급

옥과농협(조합장 박상철)은 20일 농협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장학금은 옥과와 오산, 곽면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녀 중 선발된 대학생

이날 장학금 수여식과 함께 자매결연 협회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를 대상으로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사진> 이날 장학금은 옥과와 오산, 곽면에 거주하는 조합원 자녀 중 선발된 대학생

과 고등학생 44명에게 전달됐다.

고려대학교 2학년 김현결씨 등 35명에게는 각각 100만원, 옥과고등학교 2학년 하운서양 등 9명에게는 50만원씩 총 3950만원을 지급했다.

박상철 조합장은 "취임후 지난 13년간 지역내재육성 장학금 5억원을 지급했다"며 "장학사업을 지속하고 조합원에게 힘이 돼주는 농협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기자 kjkim@

부안군 '1000원 행복 택시' 운영

부안군은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 19일 부터 승객 1인당 1000원만 내고 타는 '행복 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이 1천원만 내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하는 등 교통복지를 확대하고 있다.

버스정류장에서 마을 경로당까지 500m 이상 떨어진 31개 마을 주민이 대상이다. 차액은 부안군이 지원한다. 부안군은 지난 1월부터 거리에 상관없

부안군 관계자는 "1000원으로 이용하는 행복 택시가 노인 등 오지마을 주민들의 비용 절감과 교통 편의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서총열기자 scy@kwangju.co.kr

지리산 구룡계곡에 수줍게 핀 히어리



남원시 주천면의 지리산국립공원 구룡계곡에서 히어리가 꽃망울을 터뜨렸다.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 제공>

샘표식품(주)·익산시, 발효산업 투자 협약

샘표식품(주)이 익산시 왕궁면에 조성 중인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타진하고 나섰다.

20일 익산시에 따르면 샘표식품이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통한 기술개선으로 먹을거리 시장 개척을 위해 이날 전북도·익산시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샘표식품의 국가식품클러스터 투자를 위해 오송 R&D연구소, 서울 본사 등을 방문해 투자협약을 이끌어 냈다.

샘표식품은 식품클러스터에 500억원을 투자해 전도 발효 장류에서 바이오 발효공법을 가미하고 기술을 개선해 새로운 먹을

거리를 개발하게 된다.

또 식품클러스터지원센터 내에 입주하게 될 소스산업화센터와 연계해 기술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발효·소스 산업분야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할 구상이다.

업체는 미국, 스페인 등 글로벌 식품시장에도 발을 넓혀 발효와 장, 한식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예정이다.

시는 샘표식품의 투자협약으로 (주)하림식품과 순수분(주), 풀무원식품(주) 등과 함께 식품산업 혁신성장동력의 한 축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유정영기자 yjy@kwangju.co.kr

남원시, 국립보건의료대학 유치 힘쓴다

세계해택·인프라 구축 등

남원시가 국립보건의료대학 유치를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20일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로 문을 닫은 서남대 후속대책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이 남원에 설립돼야 한다는 전북도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에 시는 전북도와 함께 국립보건의료대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세계해택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립의료원 적극 활용하도록 계획이다. 또 정치권 등과도 협력해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당초 내륙 서남권인 지리산권 의료취약지에 서남대 의대 설립 취지와도 부합된다"며 "기존 서남대 남원 캠퍼스를 이용하면 재원부담과 준비기간을 절감할 수 있고, 전국대학 및 지자체간의 의대 유치경쟁에 대한 갈등도 봉합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노력했지만 결국 폐교했다"며 "지역민의 상실감을 치유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내륙 서남권에 위치한 남원에 보건의료대가 반드시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능성속옷 의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편안하면서도 탄성GOOD! 흡발습GOOD!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일본 도레이社 LYCRA, 발단면역각형 사용, 해양심층수 각종미네랄 이온, 실크아미노산,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www.aroma-life.co.kr

1588-2219